

이달의 농업기술

이 고 미

청결, 질서, 친절, 봉사
「**Oh! YEOSU** 4대 시민운동」

글 실는 순서

- 특집기사 / 2~5
- 친 환 경 / 6~7
- 식량작물 / 8
- 채 소 / 9~10
- 과 수 / 11
- 식량작물 / 12
- 농업경영 / 13
- 농기계 임대사업 / 14
- 웃으며 살아 갑시다 / 15
- 이달의 소식 / 16



여수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탄소시대를 선도하자!



인류 역사 전체로 보았을 때,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않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면공업에서 방적 및 방직기 발명, 철공업에서 석탄의 연료 이용, 그리고 여러 산업에서 필요한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증기기관이 발명되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이전까지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을 이용하여 물건을 만들거나 일을 하던 방식이 기계를 이용한 생산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것을 산업혁명이라고 불렀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생활방식과 가치체계를 가지게 되었고, 사회와 국가체제도 바뀌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 하였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생산력은 자연적 제약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었으며, 생산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인류는 빈곤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나 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산업혁명에 의해 확립된 자본주의 경제가 생산력과 소득은 크게 증가시키면서도 분배에 있어서는 매우 불평등하여 자본이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문제와 산업을 먼저 일으킨 나라들의 지나친 팽창주의로 인한 두 번의 세계대전, 자원고갈,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인간소외, 사회관계의 비인간화 등 농경사회에서는 겪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도 나타났다.

한편, 산업혁명은 정부에 의해서 의도적, 정책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었다.

민간영역에서부터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걸맞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험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일으킨 영국만해도 국민총생산(GDP)이 2배로 되기까지 58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이것은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정치적인 '혁명'과는 다르게

점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국가가 과거의 관습과 제도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지만 않다면 충분히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이를 간과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할 때에는 상당한 수준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기계문명으로 전환되는 시기임에도 가내수공업에 고집했던 많은 사람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사라져 갔으며, 산업화 준비가 소홀했던 나라들 역시 앞서갔던 나라들에게 지배당하는 굴욕을 당하기도 하였다.

역사에 있어서 가정은 없다지만, 조선 후기 지배계급들이 당시 산업화라는 세계사적 조류를 읽고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면, 36년이란 긴 시간을 제국주의의 지배와 착취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은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흐른다”고 하였다.

세상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변하고 있다는 말이다.

최강의 제국도, 찬란했던 문명도 영원한 것은 없다. 사라진 자리에는 어느새 새로운 다른 것들로 채워지며, 새로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새로워야 하며, 변화무쌍한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집과 독선에 빠지지 않고, 과거의 제도와 관습에 얽매어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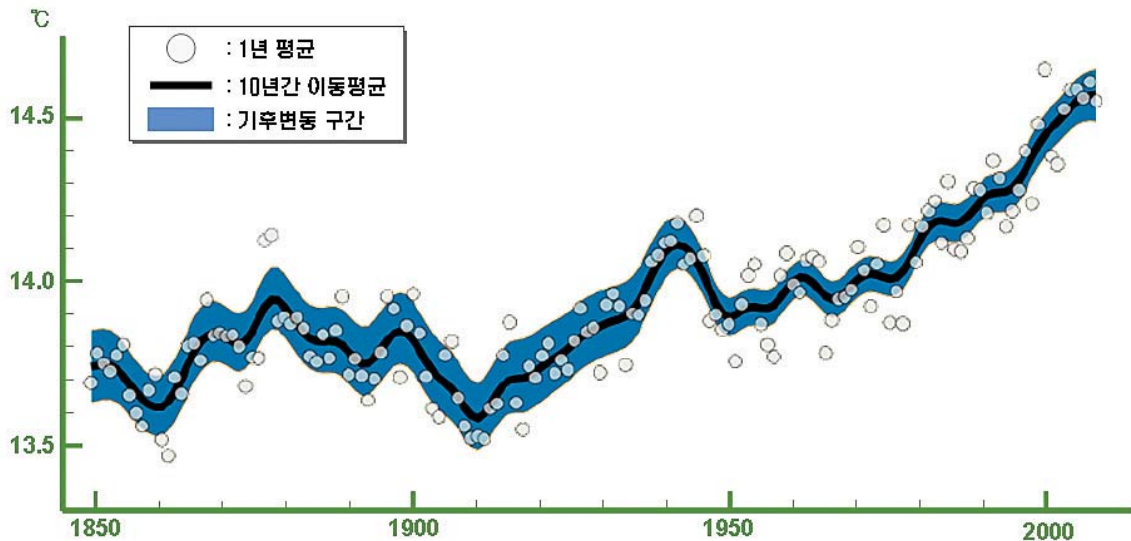
그리고, 탐구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시대상황과 세계적 조류를 탐색하여 방향성을 정하고 목표를 수립한 다음 한걸음 한걸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미래의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수 있다.

지금 인류는 산업화를 통해 이룩한 그 동안의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지도 모를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산업화의 원동력을 제공하였고, 문명에 에너지를 제공해 주었던 화석연료의 고갈 문제와 장기간에 걸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다.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는 매장량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채굴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상승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또한, 화석연료는 인간을 위해 일이나 열로 변환될 수 있을 뿐, 일과 열이 다시 화석연료로 바뀔 수는 없는 버림의 에너지이고, 일이나 열로 변환될 때 발생하는 여러 물질들이 지구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 Climate Change 2007: The Physical Science Basis (IPCC, 2007)

| 전 세계 평균온도 변화추이 |

특히,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여기에 산림벌채 등 인간의 활동들이 더해져 지난 100년간 (1906~2005) 전 세계 평균기온이 0.74°C 가 상승하였다고 IPCC보고서(2007)는 밝히고 있다.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정부, 개인 및 지역 사회, 기업에 직접적인 손실요인이 되고 있으며, 보건·건강 불안, 전력소비 증가, 사회 인프라 손실, 식량·원자재 가격상승, 소비자 기호변화, 불규칙 패턴 확산 등 다양한 위협의 원인이 된다.

많은 학자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인류라는 종이 멸종할지도 모른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로 지목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줄이거나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천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제 세계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하며, 큰 변화를 겪었듯이 산업사회 이후, 탄소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절감한 에너지비용 만큼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탄소포인트 제도가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제품 생산에서 유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생량을 표시하는 탄소성적표지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음료, 과자, 샴푸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들 뿐만 아니라 불을 정수하는 정수장에도, 비행기, 열차같은 서비스분야에도 표시를 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농산물에도 이 표시가 부착된 상품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탄소 배출이 공짜가 아니라는 'End of Free Environment!(공짜 환경시대의 종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탄소성적표지 마크 |

이러한 인식의 확산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의든 타의든 불편함의 감수와 함께 환경 비용의 지불도 당연하게 여기게 할 것이다.

우리 농업도 이러한 영향을 이미 받고 있다. 지속가능과 순환이라는 키워드는 시대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환경에 부담을 주는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은 덜 쓰도록 하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것은 탄소시대의 작은 단편일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의 모습들이 농업현장에 적용되는 사례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농현장에 탄소와 관련된 개념과 기술을 도입하고, 유통~판매의 과정에도 탄소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농가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하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알던것과 다르다고 불평만 하거나, 과거의 것을 고집하거나, 새로움을 귀찮아하거나 혹은 두려워해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

비록, 산업시대에는 뒤처졌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미래를 향한 깨어있는 시각이다.



녹비작물 재배 및 이용 기술(1)

■ 녹비작물이란?

화학비료를 대체 및 절감하기 위하여 푸를 때 베어서 토양에 넣어주는 두과, 화본과 및 경관작물 등을 말함. 농경지 유기물 공급 등으로 땅심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하는 작물임.

■ 녹비작물 재배의 필요성

- 지력유지 증진 및 토양 이화학적·생물상 개선
- 이듬해 재배작물에 양분공급 및 토양 유실 방지
- 연작장해 예방 및 병해충 잡초의 재배적 관리
- 겨울철에 푸른 자연경관 유지

■ 두과녹비작물 기능

- 공중질소 고정(8~30kg/10a)으로 비료 대체효과가 우수함
- 탄질률이 낮고 분해가 쉬워 후작물에 질소 공급 용이
- 토양 피복에 의한 잡초관리
- 토양, 양분 및 수분유실 방지
- 헤어리베치, 자운영, 클로버류, 크로탈라리아 등

1. 크림손클로버 재배이용 기술

□ 특 성

- 동계 및 하계 일년생 두과
- 개화기 4~5월(꽃색은 선홍색), 성숙기 5~6월, N 1.2~2.4%

□ 재배 및 이용

- 파종기 : 10월 상순
- 파종량 및 방법 : 2~4kg/10a, 부분경운 및 직파
 - 단작 또는 호밀, 이탈리아라이그라스 등과 혼파

2. 헤어리베치(Hairy vetch) 재배이용 기술

□ 특 성

- Vicia 속에 속하는 월년생 두과녹비작물
 - ※ 내한성이 자운영보다 강하여 대전이북 등 전국 재배 가능
- 재배적지 : 배수가 잘되는 사양질, 미사사양질 및 미사식양질
- 키 : 논 재배 70~150, 밭 재배 100~200cm이고 줄기에 세로줄의 털이 있음
- 잎 : 7쌍 내외의 작은 잎이 어긋나게 달려 있음
- 꽃 : 주로 보라색이며 20~30개의 총상화서로 약 한달간 개화
 - ⇒ 비료공급 효과가 크고 꽃이 아름다워 녹비·경관·밀원 겸용작물로 좋음

□ 재배기술

- 파종시기/파종량 : 9~10월 상순/6~9 kg/10a
- 파종방법
 - 벼 수확 10일 전 손 파종 또는 동력살분기 이용 파종
 - ⇒ 콤바인 수확 시 벧짚 절단으로 피복
 - 벼 수확 후 로터리 이용하여 조파 및 산파
 - ⇒ 종자가 토양에 묻혀 월동력이 높음
- 토양 및 시비관리
 - 배수불량 논에서 재배 시는 배수로 정비 철저
 - ※ 땅심이 낮은 곳에서는 인산, 칼리, 황을 시용



! 동력살분기 이용 입모중 파종 !

□ 헤어리베치 토양환원

- 헤어리베치 토양환원 시기
 - ⇒ 이앙 2주전(5.15~5.25)
 - 헤어리베치 생초량 : 1,500~2,000kg/10a
- 시비관리 : 10a당 생초 2,000kg정도 토양환원 시 질소비료 완전대체(무질소비료 재배)
 - 벼 생육상태에 따라 웃거름 조절, 땅심의 정도에 따라 인산 보충
 - ※ 생초 2,000kg 함유 비료량 : 질소 10~14, 인산 4~8, 칼리 8~16kg
 - ※ 10a당 2,000kg 이상 투입 : 도복, 미질저하, 병해충발생 증가



9 월은 고품질 쌀 생산에 마지막 고비



완전미 비율을 향상 시켜 고품질 쌀을 생산 합시다

- 완전미란? : 정상적인 쌀의 3/4이상의 형태를 가지고 찌라기, 착색립, 불완전등숙립, 피해립 등을 제거한 쌀
- 완전물떼는 시기
 - 일반적으로 완전물떼는 시기는 출수 후 30~40일경
 -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수확기까지 최대한 물을 대주어 양분과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켜 등숙을 촉진시키면 완전미 비율이 올라감
 - ※ 단 모래논은 수확하기 1주일전에 낙수함



수확기 가을 태풍에 대비합시다

- 9월 중하순에서 10월 초순에 우리나라에 북상하는 태풍이 가장 세력도 크고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줌.
 - 도복된 벼는 4~6포기씩 묶어 세워야 함
 - 침관수된 논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배수하고 맑은 물을 대주어야 함
 - ※ 호품벼는 수발아에 매우 약한 품종이므로 어떤 경우라도 2일이상 침관수되어서는 절대 않됨



적기 수확 및 올바른 건조로 1등급을 받읍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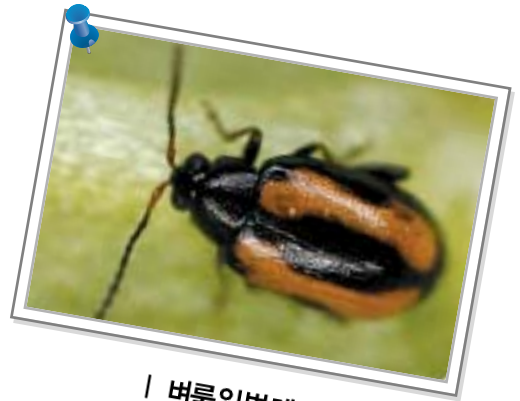
- 2013년도 여수시 수매품종
 -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 새누리벼, 황금누리벼, 호품벼
 - 여천농협RPC 수매품종 : 새누리벼, 고시히까리, 일미(계약재배)
- 적기 수확 : 한 이삭의 벼알이 90%이상 익었을 때 벼베기 실시
 - 조기 수확 : 미숙립, 금간쌀 증가
 - 만기 수확 : 기형립, 피해립 증가 (콤바인으로 만기 수확시 금간쌀 발생 증가)
- 수확 후 관리 : 건조온도 45~50, 벼 저장 수분함량 15%, 저장온도 15℃
 - 종자용의 경우 건조온도 40℃이하





무 · 배추

- 지나치게 습기가 많거나 건조한 토양에서는 뿌리 발육이 불량하며, 석회나 붕소결핍 등 생리장해를 일으키므로 배수와 관수에 주의한다.
- 웃거름은 무 파종 및 배추 정식 후 15일 간격으로 무는 3회 배추는 4회정도 주되 10a당 무는 요소 11kg, 염화가리 8kg, 배추는 요소 8~10kg, 염화가리는 2회 추비부터 8kg을 주고, 생육부진시에는 0.2% 요소액을 엽면 살포하여 생육을 촉진한다. 석회결핍증 예방을 위해서는 염화칼슘 0.3%액(물 20L에 60g)을 결구 시작기부터 5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엽면살포한다.
- 무름병은 본잎이 5~6매 이후에 7~10일 간격으로 살포하는데 가능한 지체부까지 약제가 도달하도록 하며, 배수와 통풍이 잘되게 하고, 노균병은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배추좀나방, 배추흰나비 등은 정밀 예찰로 조기 방제하며, 벼룩잎벌레는 순무황화 모자이크 바이러스(Turnip yellow mosaic virus, TYMV)를 급속히 확산시켜 황화, 모자이크, 괴사, 기형 등의 증상을 일으키므로 완전방제하고 발병 포기는 즉시 제거하여 땅에 묻거나 태운다음 주변 잡초를 제거한다.



벼룩잎벌레



배추 무름병



석회결핍증(꿀통배추)



마늘 · 양파

- 9월 하순~10월 중순이 난지형 마늘의 파종적기이므로 씨마늘은 뿌리응애와 흑색 썩음균핵병 등의 예방을 위해 껍질을 벗기고, 베노람 수화제 500배액과 디메토유제 1000배액(물 20L+베노람 40g+디메토 20ml) 1시간 침지 후 그늘에 말려 파종한다.
- 주아재배 마늘의 경우 일반 마늘보다 1주정도 일찍 파종하고, 알맞은 토양 수분 유지한다.
- 양파 육묘상은 고온장해 예방, 잘록병 방제, 습해예방 등에 주의하여 우량묘를 생산 하도록 한다.

고 추

- 병충해 발생 포장은 병든 식물체를 조기 제거하여 병원균 밀도를 낮추고, 생육이 좋은 포장은 지속적인 추비와 관수, 역병과 탄저병, 담배나방 등 병해충 방제를 잘하여 후기 수확량을 높이고, 익은 고추는 바로 수확하여 다음 고추 생육을 촉진한다.

※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고추 수확후 관리법

수확후 그늘에서 2~3일간 후숙으로 완전착색 후 건조하되 건조 전에 고추 세척기를 사용하여 농약 등 불순물을 씻어내어 청결한 고추를 생산한다.

건조기 온도는 50~60℃에서 2일간 건조 후 다시 2~3일간 햇빛에 건조.

- 수확이 완료된 포장은 병든 잔재물의 제거 및 소각, 고추대, 잎, 줄기 등을 완전히 없애 포장을 깨끗하게 관리한다.



| 수확적기 붉은 고추 |

태풍 및 기습 폭우 대비 과원관리 대책

사전대책

○ 수분관리

-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 정비
- 배수 불량과원은 열 중앙이 간이 배수로를 설치
- 배수로의 경사가 크고, 긴 경우는 중간에 집수구를 설치 유속 감소

○ 토양관리

- 경사지 과원은 짚, 산야초, 비닐 등으로 덮어 토양유실 방지
- 토양개량에 힘써 뿌리 분포를 넓고 깊게 해주어야 함

○ 나무관리

- 나무마다 튼튼한 지주를 세우고 잘 고정시켜 줌
- 늘어진 가지는 버팀목을 세움
- 수관내부까지 광환경을 개선하여 잎의 생리장해 발생예방



○ | 강풍에 의한 도복피해 |

사후대책

○ 토사가 쌓인 과원

- 토사를 빨리 제거하고, 유기물이 많이 쌓인 과원은 시비량을 줄임

○ 침수된 과원

- 배수로를 정비하여 물이 빨리 빠지도록 함
- 잎에 묻은 흙양분을 씻어주고, 병든 과실은 제거하며, 토양이 마르는 것을 기다려 얇게 경운

○ 염분피해 과원

- 부러져 염분피해 우려되면, 태풍 경과 1시간 이내에 1,000ℓ/10a 이상의 지하수로 염분을 세척해주고, 특히 비를 동반하지 않은 태풍 내습시 피해가 더욱 커지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지하수 염면 살포함

○ 도복, 가지절단 낙과 및 잎 파손 피해를 입은 과수

- 도복된 땅이 마르기 전에 나무를 세워 고정, 뿌리 주변에 흙을 채운 후 예취한 풀로 피복
- 부러진 가지는 절단면이 최소화 되도록 자른 후 보호재를 발라줌
- 상처부위로 2차 병원균 침입방지를 위하여 살균제를 살포
- 장기 강우, 태풍에 의하여 잎이 많이 손상된 나무는 수세 회복을 위하여 요소 (0.3%), 4종복비 등을 엽면시비
- 도복으로 뿌리 절단량이 50% 이상되는 나무는 겨울 전정시 강전정하고, 이듬해 잎이 작고, 새가지가 짧은 나무는 과실을 제거한 후 회복정도를 판단하여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나무는 새 묘목으로 보식함

감자 가을재배



■ 감자 가을재배 특징

- 가을감자는 괴경 비대기에 주, 야간 온도교차가 크고 일사량이 많으며 기후가 서늘하여 괴경 비대가 빠름
- 감자 수확 후 겨울동안 저장에 용이하여 경영에 유리함

■ 재배상 주의사항

- 파종기 고온 다습으로 입모율 확보가 곤란함
- 경수가 적어 대서(너무 큰 감자)생산이 많아 상품성이 저하됨

■ 씨감자 처리방법

- 가을재배용 추백, 대지 품종을 이용하는 것이 좋음
- 씨감자는 남부지방에서 봄에 채종한 것을 구입하여 재배
- 산광최아 빛 육아재배하여 파종해야 입모율 확보가 유리
- 씨감자는 너무 크거나 작은 것보다 30~120g정도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씨감자 소요량이 적어 경제적인

■ 정식

- 정식(파종)시기 : 남부지방 8월 중·하순~9월 상순
- 포장준비 : 퇴비(1,000kg/10a)를 전면 시용하고 경운 빛 정지후 이랑을 동-서방향으로 만듦
- 비료시비 : 가급적 골시비를 하며 질소를 15kg/10a로 증시
- 씨감자놓는 위치
 - 씨감자는 두둑의 북쪽면 중간에 놓되 이랑 바닥보다 씨감자위치를 높게 놓아 강우시 씨감자가 침수되지 않게 함
- 씨감자 덮는 두께
 - 가을감자 파종시기는 대부분 과습하므로 3~5cm 정도로 얇게 덮어 싹이 빨리 출현되도록 함
- 짚 피복
 - 파종 후 씨감자 놓인 부분에 밧짚 등으로 피복하면 지온상승과 지표면의 굳어짐을 방지하여 입모율 확보에 유리함

(단위 : 원)

쌀 20kg	서울	부산	광주	순천	평균	전년동월
평균	82,850	82,643	83,400	81,200	80,931	77,698
유기농	90,500	91,885	86,400	87,200	88,169	85,779
무농약	75,200	73,400	80,400	75,200	73,693	69,616
감자(수미) 1kg	서울	부산	광주	순천	평균	전년동월
평균	4,445	4,170	3,100	4,380	3,665	3,735
유기농	-	4,380	3,100	4,380	3,766	3,781
무농약	4,445	3,960	-	-	3,563	3,689
깻잎 200g	서울	부산	광주	순천	평균	전년동월
평균	8,393	8,530	6,600	5,120	7,574	6,724
유기농	8,393	-	6,600	-	9,247	7,979
무농약	-	8,530	6,600	5,120	5,900	5,469
풋고추 100g	서울	부산	광주	순천	평균	전년동월
평균	1,417	1,345	1,320	-	1,346	1,151
유기농	1,433	1,500	1,320	-	1,433	1,200
무농약	1,400	1,190	-	-	1,258	1,101
당근(무세척) 1kg	서울	부산	광주	순천	평균	전년동월
평균	5,495	7,000	5,660	7,000	6,313	4,823
유기농	5,840	-	5,660	-	6,297	5,039
무농약	5,150	7,000	-	7,000	6,328	4,607
상추(적) 100g	서울	부산	광주	순천	평균	전년동월
평균	2,362	2,560	2,770	3,130	2,241	1,545
유기농	2,362	3,130	2,770	3,130	2,489	1,644
무농약	-	1,990	-	-	1,993	1,445
토마토 1kg	서울	부산	광주	순천	평균	전년동월
평균	9,005	8,220	8,180	10,690	7,145	4,459
유기농	-	-	-	-	5,686	4,196
무농약	9,005	8,220	8,180	10,690	8,603	4,722
피망(청) 100g	서울	부산	광주	순천	평균	전년동월
평균	1,343	1,260	1,240	1,000	1,323	1,079
유기농	1,343	1,000	1,240	1,000	1,265	994
무농약	-	1,520	-	-	1,380	1,163
애호박 1개	서울	부산	광주	순천	평균	전년동월
평균	2,905	2,290	2,740	-	2,856	2,284
유기농	3,000	2,000	2,000	-	2,856	2,300
무농약	2,810	2,580	3,480	-	2,856	2,267

자료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3. 8. 8 기준)

자료검색방법 : www.kamis.co.kr (가격정보→친환경농산물정보→품목별가격정보를 이용하면 보다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과
도·소매 정보 등 가격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신속하게 빌려주는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 관련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 여수시 조례 제759호(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 운영방법

- 보유기종 : 54종(31기종) 93대(벼농사 7기종, 밭농사 17, 축산 10, 과수 2, 공용 18)
- 운영기간 : 연중(공휴일 제외)
- 임대장소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 임대료 : 유상임대(임대료 납부 확인 후 임대 가능)
- 임대기준 : 1농가/1기종/2일이내
- 임대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대형 동력기계 임대는 오후 4시까지)
※ 농업인 희망시 출고 전날 오후 4시 이후부터 출고 가능
- 임대료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 대형 동력기계 현지운반서비스 : 농업기술센터 ↔ 현지, 5톤차량 이용
- 대형 동력기계 해당기종 : 트랙터, 콤바인, 스키드스티어러
- 출고한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사용한 농기계는 세척 후 반납

◎ 농기계 임대절차

직접방문 ⇒ 농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 임대료 납부(수납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 임대료 납부 확인 후 임대기준 출고(출고시 안전수칙 교육) ⇒ 영농작업 ⇒ 장비세척(농가) ⇒ 반납 ⇒ 고장여부 확인 후 입고

※ 임대료는 여수시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 신청 예약방법

- 방문/전화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
☎ 061-690-7573(직통전화), 휴대폰 010-5691-7573
- 인터넷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http://ysagr.go.kr>) 농기계 임대사업 “클릭”



건강한 삶이 장수하는 삶이다.

웃으며 살아 갑시다!

초등학교 산수시간

선생님 : 철수야, 사과 5개에서 3개먹으면 몇 개 남지?

철 수 : 3개요

선생님 : 뭐? 아니 왜지?

철 수 : 우리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했거든요^^



힘센 할아버지

80세가 넘는 한 노인이 공원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길 가던 남자가 노인에게 물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노인이 대답했다.

‘나는 스무 살짜리 아가씨와 얼마 전에 결혼 했어요’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나는 내 나이에 비해 정력이 매우 좋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관계를 가질 수 있지요.’

‘근데 할아버지,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노인 왈 ‘근데 내가 어디 사는지를 잊어 버렸어~ 흑흑’

규칙적인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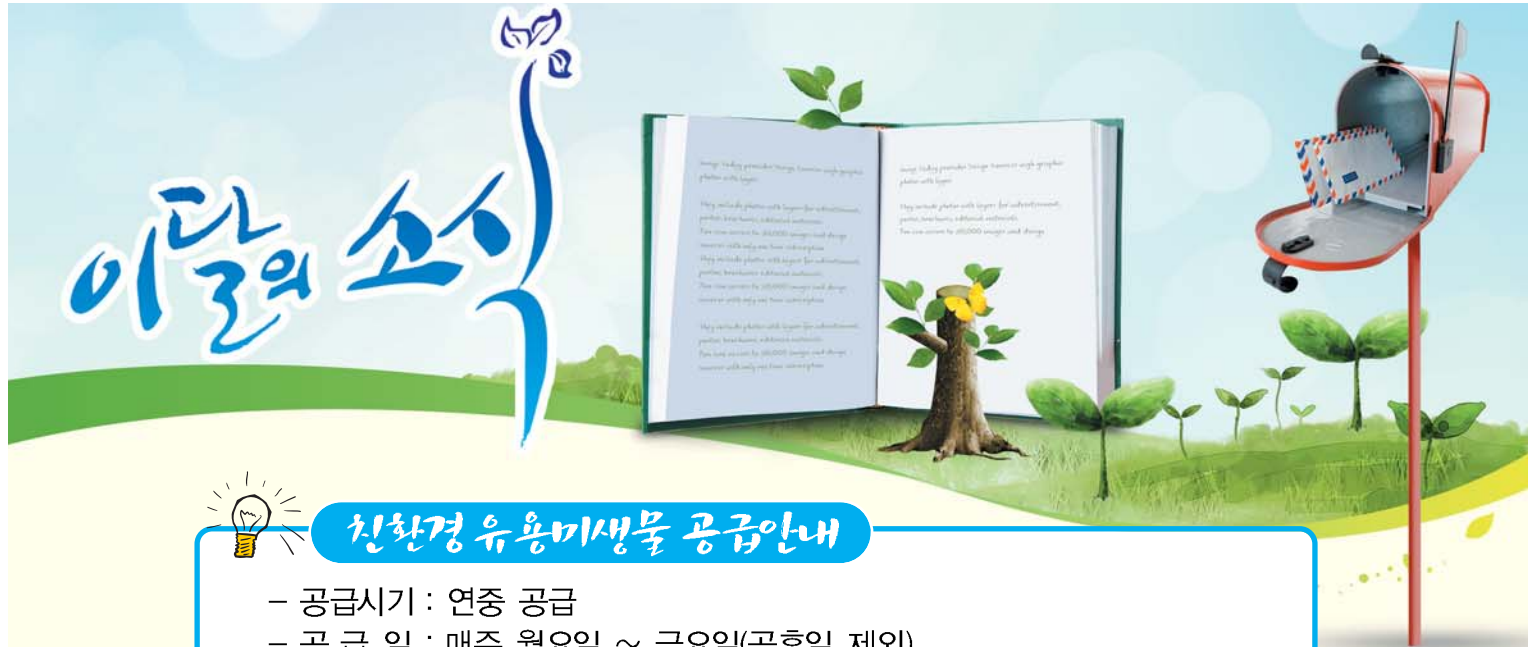
매일 지각하는 학생이 있었다.

화가 난 선생님이 며칠을 버르시다가 야단을 치셨다.

‘넌 어쩜 개학 첫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각을 하나?’

그러자 학생이 하는 말

‘선생님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랬잖아요!!’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안내

- 공급시기 : 연중 공급
- 공 급 일 : 매주 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 공급대상
 - 무상공급 : 친환경인증을 받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
 - 유상공급 : 여수시민 300원/ℓ, 여수시 법인 및 단체 500원/ℓ, 여수시민이외의 자 1,000원/ℓ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여수시 주동1길 32 (주삼동)
☎ 061-690-7270 Fax 061-690-8133

• 2013년도 여수시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은 새누리벼, 황금누리, 호품벼 입니다.

24절기 알아보기



♣ 백로(白露) : 9월 7일

처서(處暑)와 추분(秋分) 사이의 절기이다. 가을에 접어드는 시기로 일조량이 많아서 곡식이 여무는데 좋다. 제철식품으로 포도가 있어서 포도순절(葡萄旬節)이라고도 한다.

♣ 추분(秋分) : 9월 23일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
이 시기부터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며,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 농사력에서는 이 시기가 추수기이므로, 백곡이 풍성한 때이다.

- 농업인 여러분의 농사 길잡이인 『이달의 농업기술 이끄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잘 읽어 보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좋은 정보는 이웃에게 알리어 올해 농사도 알찬 결실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여수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061) 690-2721~2724 Fax. 690-8133

<http://ysagr.yeosu.go.kr>